



##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 장애인아트센터 ‘아름다운 등불’ 건립하는 장병용 목사

장애인에겐 사치스럽다고 여겨지던 예술, 불가능하다고 말해지던 예술을 절박한 예술로, 기능성의 예술로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 ‘아름다운 등불’이라는 이름의 ‘장애인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수원등불감리교회의 장병용 목사. 그는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그가 생각하는 장애인과 예술의 관계는 무엇일까?

글 김희경 큐레이터 | 사진 박정훈

가능성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 ‘Can’이라는 동사를 사용할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성에 관해 이렇게 묻는다. 인간이 과연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장애인에겐 사치스럽다고 여겨지던 예술, 아마추어적이라 생각되던 예술, 불가능하다고 말해지던 예술을 절박한 예술로, 아티스트의 예술로, 기능성의 예술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 수원등불감리교회의 장병용 목사. 그가 건립을 추진해오던 ‘장애인아트센터’의 착공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아트센터에는 ‘아름다운 등불’이라는 이름도 생겼다. 무능력의 예술, 불가능의 예술을 어떻게 능력과 기능성의 예술로 바꾸어왔고, 바꾸어갈지 들어보기 위해 그의 목양실로 찾아갔다.

**문화예술** 목사님 워낙 유명하셔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아, 바로 이 모형이 이번에 지으시려는 장애인아트센터인가요? 모형만으로도 너무 예쁩니다. 웬지 건축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장병용** 제가 장애인아트센터를 지어보자고 결심한 것이 10년 전이에요. 기왕 짓자고 결

심한 거 정말 아름답게 제대로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어느 건축가에게 맡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경험과 기억>이라고 서울대 종교학과 정진홍 교수가 쓰신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 말미에 어떤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영성과 미학을 잘 조화시킨 제일영광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얼마 후에 장애인아트센터 자문위원인 박남준 시인을 만났는데, 아 글썬 어떤 건축과 교수를 추천하더라고요. 그 분이 바로 <경험과 기억>에서 읽었던 박재현 교수였어요. 그래 그 길로 박 교수를 만나 장애인아트센터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했죠. 고맙게도 “장애인들을 위한 건축을 하고 싶다. 작품을 만들어보겠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장애인아트센터 기본설계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예쁜 건물이 지금 우리 앞에 있게 됐죠.

**문화예술** 그런데 왜 이걸 만드시려고 하시나요? 장애인을 위한 목회를 해오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교회 신축도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도 우체국 상가건물 2층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장애인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건 꽤나 벽찬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장병용** 아... 그게 얘기가 좀 길어요. 한 20년쯤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로 첫 목회를 시작할 때의 일이었어요. 나는 목회를 우정행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지금도 변함없고요. 예전에도 모든 성도들이 제 친구였지요. 특별히 친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예술적으로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친구였어요. 늘 고흐의 화집을 보고 그림도 잘 그리고, 내 서재에 있는 많은 책들도 다 볼 정도로 인문학 소양도 깊고 책을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자기가 쓴 희곡으로 연극을 올리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장문의 유서를 내 앞으로 써놓고 자살을 했어요.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지요. “내가 살기엔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곳이야. 내 지친 몸과 영혼은 이제 좀 쉬어야겠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장 목사 당신이야.” 라고 써 있었습니디. 그 친구, 장애인이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장애가 있는 육체와 예술적인 영혼 둘 다를 가지고 살기엔 너무 벽찬 세상이었어요. 20년 전만해도, 그 친구 다리에 철로 된 의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아서 일주일 뒤졌어요.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회잔데... 목회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제일 친한 친구를 못 살렸으니... 참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물을 뒤져 겨우 그 친구의 시체를 찾았어요. 그날 강물을 바라보면서 결심을 하나 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고 가버린 그 친구 대신, 이제 내가 죽어가는 장애인 살려내는 일에 정말 목숨 걸겠다고 말이죠.

**문화예술** 장애인아트센터 건립하는 게 죽어가는 장애인 살리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장병용** 제가 장애인 살리는 일에 목숨걸기로 결심한 뒤로 장애인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외국 장애인문화는 어떤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예술을 위한 전문 기관을 살살이 둘러봤어요. 호주,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일본의 하나아트센터에 갔을 때였어요. 무릎을 쳤죠. 지체장애,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숙하면서 도예, 회화, 설치공예를 할 수 있는 작업장도 있고, 게다가 음악, 문학, 연극, 퍼포먼스까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 준 공간이었어요. 하나아트센터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는 전문 아티스트가 된 사람도 있었죠. ‘아, 내 친구가 이런 곳에서 태어났었다면 죽을 이유가 없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하나님 주신 재능을 맘껏 나누는 훌륭한 아티스트들을 키울 수 있겠구나 했죠.

**문화예술** 그래도 요즘 소외자를 위한 문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보다는 커지

고 있잖아요. 반면에 아직까지도 장애인이 예술하는 것에 대해 참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도 시급한데 무슨 예술이라는 거죠.

**장병용** 장애인들에게 예술이라는 것은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사실 처절한 애깁니다. 정말 처절하죠. 신체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 결혼, 직업선택이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절망 같은 2차 장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삶이 괴로워 죽는 장애인들도 있지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인간 모두에게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내면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이죠. 그 마음, 참 행복한 마음입니다. 표현하면 행복하고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면 더 행복해지죠. 이걸 복지보다도 더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 ‘장애’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런 인식 때문에 배부르네, 사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장병용** 하나님께는 실패한 작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몸과 정신이 나와 다르다는 그 ‘차이’ 때문에 차별과 억압과 소외가 생겨요. ‘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그 자체로 완벽한 작품이지요. 또, 다르기 때문에 실은 장애인만의 다른 문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특한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소 거친 것 같지만 장애인예술에는 원초적인 생명력이 있거든요. 현대예술에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력이 장애인문화에는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 밥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 우울하고 좌절한 장애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니 결국 우리 인간 모두의 행복이 예술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신데요, 신학자이신 목사님께도 그런가요?

**장병용** 저는 목사가 직업이지만 시도 씁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시간엔 시를 읊지요. 첼리스트가 와서 연주를 할 때도 있고요. 한번은 설교 전에 ‘신의 날’이라는 첼로 연주를 다같이 들었는데, 아, 앞에서 보니 교우들이 그 연주에, 음악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안 하고 예배를 끝낸 적도 있어요. 내 설

교가 오히려 그 아름다운 감동에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근처에 있는 낮은 산을 교우들과 함께 오르기도 해요. 소나무향과 산에 핀 꽃들을 보면 ‘오매, 환장하겠네!’ 하는 탄성만 나와요. 음악이, 자연이, 예배가 결국 예술인 것이죠. 사실 목사는 아티스트예요. 전 예술의 힘을 신뢰합니다. 예술의 힘이 결국 영성이거든요. 정말로 아름다운 것, 절실한 것은 사람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에게 정말 은혜가 된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문화예술** 아름다움이 결국 영성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영성까지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장애인 예술단체들이 없는 것이 아닌데요. 만들려는 장애인아트센터가 건축으로서의 아트센터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장병용** 네, 시각장애인예술협회인 ‘우리들의 눈’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림단체인 ‘소울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장애와 예술이 결합된 단체가 몇몇 있지요. 장애인아트센터는 바로 그 단체들과 함께 가는 센터가 될 거예요. 장애인아트센터라는 곳이 여러 단체들을 모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나라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단체들과 연대도 할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아트센터가 장애인들만을 위한 곳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곳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판을 벌여놓는 것이죠.

**문화예술** 모두에게 명석을 깔아놓으신다는 얘긴데요. 물론, 판이 있어야 하겠지만 콘텐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 건물에 넣으시느냐가 결국 장애인아트센터의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이곳의 콘텐츠는 이미 기획이 되었나요?

**장병용** 네. 첫째는 문화예술교육 전문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음악, 미술, 문학, 무대예술 등 여러 방면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을 위한 비정규 교육기관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냥 취미로, 여가로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아티스트로 이들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셋째로 예술치료, 심리치료도 병행하려고 하고요. 넷째로 예술을 통해 직업재활을 하려고 해요. 미술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아트상품을 기획,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예술활동 공간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을 살리는 길에 나선 장병용 목사의 목양실 한편에는 '먹감나무판'이 놓여 있다. 장 목사는 그 나무를 '암 걸린 나무였다'고 표현한다. 감나무의 상처에 불순물이 스미면 '암'이 되고, 그것이 검게 뭉쳐 무늬가 된다. 그 무늬가 아름다워 목공예와 고급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상처가 아름다움이 된 것이다.

췌. 마지막으로 이곳을 장애와 예술에 대해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곳으로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방향은 매우 뚜렷한 것 같아요. 장애인아트센터 내부는 어떤 공간들로 채워지나요?

**장병용** 이 건물은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6층으로 지어질 텐데요. 지하 1, 2층은 공연장이 될 거구요. 1층은 주차장과 어린이예술도서관이 들어갈 겁니다. 2층은 문학카페, 전시공간, 아트숍이, 그리고 3층은 센터장실로 구성되죠. 4층에는 세미나실과 식당, 음악, 미술실이 들어갈 예정이고, 5층은 도예, 공예, 회화를 위한 미술 작업장이 들어갈 겁니다. 제일 꼭대기 6층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의 토대가 될 종합작업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9월에 착공 들어가면 내년쯤엔 모형이 아닌 실제 공간에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작업도 하고 공연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를 마칠 즈음에 장병용 목사는 목양실 한쪽에 있는 나무판 하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다. “저 나무 어때요?” “뭐 좀 검은 무늬도 있지만 좋은데요?” “저 나무 암 걸린 나무

였어요.” 하며 먹감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감나무는 가지가 잘 부러지는데, 거기에 여러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그 상처가 암이 되고, 그것이 검게 뭉쳐진 듯한 무늬가 된다는 것이었다. 근데 이 검은 무늬가 너무 아름다워 목공예와 고급 가구를 만드는 데 다시 쓰인다 했다. 상처가 아름다움이 된다는 함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결국 아름다움이 우릴 구원할 것이라는.

글쓴이 **김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시각장애인예술협회 '우리들의 눈' 회원으로, 서울맹학교 방과후수업 미술수업을 하고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프리랜서 미술관프로그램 기획자이자, AFI(국제작가포럼)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이다.